결연한 메시지 '감동'…온라인 중계 '성황'

전국승려대회 이모저모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정부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번 전국승려대회가 한국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단합된 모습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생각이 불교계를 움직였다고 봅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종교편향은 반복될 것이고, 발전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1월 21일 오후, 조계사 앞마당에 모인 5000여 명의 스님들은 한마음 한 뜻이었다.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지역에서 모인 스님들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행동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을 뿌리 뽑겠다는 간절한 원력이 가득 찼던 전국승려대회 현장 이모저모를 소개한다.

◆ 방방곡곡서 올라온 버스 120여 대

이날 전국승려대회 참가를 위해 전국에서 스님들이 이른 새벽부터 길에 나섰다. 동화사와 은해사, 불국사 등에서 20대, 해인사와 통도사, 금산사 등에서 14대, 신흥사와 월정사, 법주사 등에서 20대의 차량이 움직였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도로의 혼잡을 피하고자 120여 대의 버스는 경복궁과 창경궁, 탑골공원 등 종로 곳곳으로 나뉘어 주정차했다. 스님들은 도보로 조계사에 향했다.

◆ 전국사찰에서 일제히 타종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기원하는 타종의식을 전국 사찰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승려대회가 시작됐다. 1월 21일 오후 2시, 전국 사찰에서는 6번의 범종이 타종 돼 반야의 법음을 울렸다. 타종을 통해 뭇생명에게 승려대회의 메시지를 전했다.

◆ 종교편향 영상물에 탄식

승려대회 중반, 경내 중간중간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서는 종교편향과 불교폄훼 관련 영상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다. 불교계는 정부의 코로나19 지침을 선제적으로 지키며 모범을 보여왔음에도 지속된 종교편향과 불교폄훼로 차별을 받아왔다는 내용이 화면에 나오자 스님들은 고개를 흔들며 "저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모일 수밖에 없었다"라며 탄식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의 절절함이 담긴 발원문은 5000여 대중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다.



종무원과 포교사단은 질서 유지 등 여법한 회향을 위해 노력했다.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모든 스님들은 경내 입장 전 체온을 측정했다.



유튜브 실시간 중계에는 다양한 댓글이 이어졌다.

◆ 발원문 낭독 엄숙한 모습 '눈길'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통합의 큰 물결이 돼 다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전통문화 와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파사현정의 깃발 높이 들고 한치의 물러남도 없이 정진할 것을 서원합니다."

나지막하지만 절절함이 담긴 발원이 조계사 앞마당을 휘감았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의 발원문 낭독 시간, 전국승려대회 참가 대중들이 모두 합장을 하는 풍경이 연출되는 진중한 장면이 포착됐다. 대중들은 간절한 모습으로 두 손을 모았다. 경내에서는 낭랑한 발원문이 울려 퍼졌고, 5000여 대중들의 마음 마음을 이어 하나로 만들었다. 발원문에 앞서 진행된 석가모니불 정근에서는 평화적이고도 장엄한 모습이 연출됐다.

◆ 황희 장관 · 송영길 대표에 격앙

승려대회 말미, 승려대회 봉행위원회는 정부와 민주당의 요청으로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면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자 참석한 스님들은 격앙된 모습을 보였고 이어 황 장관이 유감을 표하는 영상이 상영되자 좌중에서 "항상 말 뿐인 이들에게 사과 기회를 줄 수 없다"는 반대 함성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영상은 스님들의 반발로 중단됐다. 송영길 대표는 영상 상영 후 단상에 올라 종단이 지적한 종교편향 사례에 대해 직접 사과할 예정이었으나 좌중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일부 참가자들이 항의의 뜻으로 자리를 뜨면서 무산됐다. 스님뿐 아니라 조계사 주변에 있던 불자들 역시 "거짓말을 일삼는 이들의 사과를 받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대회 질서 유지 · 불자 권익 지킨 호법단

조계종 총무원 종무원과 포교사단으로 구성된 100여 명의 호법단은 대회질서 유지, 대열 안내, 안전사고 예방 및 외부단체와 충돌방지 등 원만한 회향을 위해 노력했다. 봉은사신도회와 도선사신도회에서 각각 40명이 동참, 조계사 일대를 둘러싸며 외호에 힘을 보탰다. 호법단의 노고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전국승려대회는 여법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 철저한 방역수칙…의료부스 설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다. 모든 스님들은 경내 입장 전 스텝의 안내에 따라 체온을 측정했고 이후 삼보륜이 찍힌 스티커를 장삼에 붙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스님들은 또 안심콜 통화로 출입등록과 접종 여부를 확인한 후 경내에 입장할 수 있었다. 대회장 좌석 설치도 1m 거리두기를 적용해 배치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조계사 경내에 의료부스를 설치하고 3명의 의료진을 파견했다. 일주문 앞에는 구급차와 이동검진차량을 준비했으나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대회는 무사히 끝났다.

◆ '예수는 행복의 시작' 광신도 눈살

승려대회가 봉행되는 동안 특정 종교인으로 보이는 광신도가 나타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다. 조계사 인근 우정국로에서는 '예수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 이라는 문구가 적힌 차량이 스피커를 켠 채 거리를 왕복했고, 예수천국' 등과 같은 피켓을 들고 선교하는 특정 종교인이 시비를 걸 듯 불자들 사이를 활보 했다. 그러나 호법요원들의 통제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 유튜브로 동참한 '승려대회'

BTN과 BBS불교방송은 유튜브를 통해 승려대회를 실시간 중계했다. BTN 특별생방송 조회수는 4만여회, BBS불교방송의 경우 3만여회에 달했다. 실시간 댓글도 쉼 없이 달렸다. 한 유튜버는 댓글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국민들 귀를 막고 있으면 스님들이 일어났겠느냐"며 "현장 참여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댓글은 생중계가 끝난 이후까지 이어졌다.

SBS 등 공중파도들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승려대회를 중계했다. SBS 뉴스의 경우 승려대회 현장중계 조회수가 9만회에 달했다.

"불교 폄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전국승려대회 주요인사 발언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을 규탄하는 전국승려대회가 1월 21일 오후 2시 시작, 오후 3시 30분 여법하게 회향됐다. 전국 각지에서 스님 5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질서정연하고 장엄하게 진행된 승려대회에서는 오랜 기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종교차별 행위에 대한 불교계의 준엄하고도 강경한 경책이 이어졌다.

이날 전국승려대회에서 스님들은 찬란한 민족의 전통문화를 규제로 옭매고 홀대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은 대회연설에서 "한국불교는 1700여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전통문화를 보존 육성하고 정신문명을 이끌어 왔지만 국가는 기본적인 수행과 신행,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규제를 겹겹이 가해오고 있다"고 비판하고 "수많은 사찰과 사찰림이 국공립공원으로 강제 편입됐고 이로 인한 각종 교제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으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문화재관람료로 인한 마찰과 갈등이 발생해 국민적 비난이 사찰과 스님들에게 향할 때마다 책임을 외면한 채 방관해 왔다"며 "국공립공원을 무료로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거짓 홍보를 하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과 스님들을 국민적 비난거리로 만들었다"고 개탄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도각 스님도 "불교재산관리법과 자연공원법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된 한국불교는 산중에나 있는 종교가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남한산성 천주교 순례길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롤 캠페인과 같은 공공기관의 특정 종교 홍보활동 등을 열거한 스님은 "기독교인의 훼불과 사찰 방화도 묵묵히 감내해 왔지만, 현 정부에 들어서도 그릇된 신앙으로 무장한 공직자들이 종교갈등, 종교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도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해미읍성, 천진암, 주어사 등 오랜 불교 역사를 가진 곳을 특정 종교 성지화에 지원하고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교 역할을 배제해 온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

이날 스님들은 한국불교를 지켜내기 위해 더 이상 침묵하지도, 권력에 기대지도 않겠다는 결의를 표했다.

도각 스님은 "오늘의 참담한 현실의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며 "오직 부처님 법대로 살겠다 서원한 사부대중 모두는 바로 오늘 정치권력, 공권력에 대한 결연한 독립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불교는 더 이상 국가권력과 위정자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기대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의 존엄을 세우기 위해 백척간두 진일보하는 심정으로 부정수교, 파사현정하는 정법 순교의 길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덕문 스님도 "정부여당을 준엄히 꾸짖어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 정신을 확립하고 한국불교의 자주권과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존재했던 1700년 역사의 한국불교 존엄을 다시 세우고 승가와 교단을 스스로 지키는 정법 당간을 높이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

전통문화 홀대한 정부 비판
"국민 비난거리 됐다" 개탄
한국불교 자주권 바로 세워
"권력 기대지 않겠다" 결의

를 높였다. 위법망구 각오로 파사현정 깃발을 높이 들겠다고 말한 덕문 스님은 "한국불교의 자존과 위의를 세우기 위해 물러섬 없이 부종수교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문 스님은 "엄동설한에 승려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벌어지는 종교차별과 불교폄훼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제 이 땅에서 부당한 종교차별과 불교 폄훼를 뿌리 뽑겠다는 불퇴전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윤식 중앙신도회장도 연대사에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새로운 역할이자 본분이며 한국불교를 지켜내는 일"이라며 2000만 불자가 스님들을 끝까지 외호하며 종도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불교왜곡과 폄훼는 물론 종교 편향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모든 난관은 파사현정 정신으로 헤쳐 나가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임은호 기자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봉 행 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천만 불자 여러분!

역사 속에 국가의 위기마다
항상 국민들의 곁을 지켜온 한국불교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속에 국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있는
이천년 찬란한 민족의 전통문화가 홀대받고 있습니다.

조선조말 목숨을 내놓고 천주교인들을 보듬어 준
통합과 자비 그리고 포용의 불교는 다종교 국가인 대한민국을 종교간 분쟁이 없는 모범국가의 토대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도 불교계의 헌신에 대한 결과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천진암과 주어사는 천주교 성지가 되었으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국립공원의 울타리는 수행공간을 옥죄고 있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규제받아왔습니다. 온전히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으로 인정받은 문화재구역입장료도 '통행세'로 치부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 정부가 있습니다.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도 불공정했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해야할 정부가 앞장서 종교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부추기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님들은 불조의 혜명을 바로 이어가기 위한 정법의 횃불을 드높이 치켜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국 제방의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을 위한 스님들의 염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불자여러분!
오늘 우리 승가공동체의 결집은 불교계만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며, 전통문화를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편협하고 차별적인 사회를 향한 외침이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파사현정의 몸부림입니다. 또한, 종교편향과 차별을 조장하는 분열의 세력에 준엄한 죽비경책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다름과 차별, 갈등과 분열이라는 검은 장막을 걷어내어,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정치권력에 의한 종교편향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여 상생과 화합 그리고 통합의 거대한 물결을 이뤄내고자 합니다.

오늘 엄동설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의 자주권 수호를 위하여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수희동참 해주신 원로대덕 스님들과 승가공동체 여러분과 함께 정진 또 정진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의 자비 위신력이 결집 대중에게 함께 해주시고
대비원력이 성취되도록 찬란한 빛으로 현현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경배드리옵니다.

불기2566(2022)년 1월 21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